

■인터뷰-제6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신임 김영식 이사장

“고객 친절과 시설 안전은 임직원들이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09-13 오후 12:06:16

마포타임즈 ☒ mapodesk@hanmail.net

인사는 실적위주로, 신상필벌은 명확히 할 것

제6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신임 김영식 이사장) 취임식이 9월 9일 오후 2시 마포창업복지관 2층에서 열렸다.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영식 이사장과 만나 취임소감 및 임기동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등에 대해 들어본다.

▷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며 취임소감 한 말씀...



=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믿고 훌륭한 공기업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에 임명해주신 박홍섭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를 엄격히 추천해주신 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의 평가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경영성과를 올리고 퇴임하신 홍성환 전 이사장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취임이 기쁘기도 하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을 어떻게 선배님들이 이뤄놓은 성적이 더욱 빛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 이번 제6대 이사장에 도전한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데 추천받은 이유가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류 내셨던 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마포·용산구에서 과장(기획예산과, 세무1과, 국민운동지원과, 주택과 등), 국장(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등을 역임하였고 최근까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높이 사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갈 계획이십니까?

=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마포구에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쓰레기때문에 마포구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30년을 쓰기로 했고 이제 18년이 되었고 최소 앞으로 12년은 마포구가 더 써야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마포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민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아울러 수익창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서울시의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거론은 마포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며, 오랜 세월 서울시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아왔던 구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마포를 상징하는 시장으로 마포구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마포구와 상생하는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포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일 열린 취임식 현장(제공=마포구)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첫째, 인사는 실적위주로 할 것이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고객친절과 시설안전은 공단 임직원들이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은 공단경력의 목표이며, 고객에게 친절·봉사는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의무이며, 안전은 인간존중의 정신이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입니다. 경영혁신은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오므로, 공단의 수익을 창출하는 투명성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 임직원의 공적인 일 모두가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사, 회계, 절차는 모두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신뢰를 공유하게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질서 준수는 선진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며, 나아가 인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성을 기본으로 소홀함이 없

